

| 2기 사회적 대화 출범 스케치 |

2기 경사노위,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세종 전문위원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는 물론, 공공기관, 보건의료 등 주요 업종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산하 회의체가 잇따라 발족하면서, 경사노위 2기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지난 10.31.(목) 『버스운수산업위원회』와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11.11.(월)과 11.22.(금)에는 각각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와 『공공기관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켰다.

10.11.(금) 본위원회에서 관련 회의체 설치를 의결한 지, 한 달여 만에 2기 경사노위의 열개가 짜여지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가 궤도에 오른 셈이다.

경사노위는 이번 4개 위원회의 추가 설치로 의제별·업종별위원회 각각 5개씩 모두 10개의 산하 위원회를 두게 됐다. 산하 위원회가 10개를 넘긴 것은 전신인 노사정위를 포함하여 발족 21년 만에 처음이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제 범위가 방대한 만큼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

〈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 현황

구분	의제별위원회	업종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신규 (4)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증전 (6)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종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국민연금과노후소득보 장특별위원회

처기업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등 한국사회가 앓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면밀한 진단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배전의 노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어수봉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지만, 한두 가지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난제”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디딤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대화를 이끌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총출동해 축사를 하는 등 위원회 시작에 힘을 실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이 몇 대에 걸쳐 일해도 만들 수 없는 부가 한순간에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의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공정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위원장(중앙대학교 교수)을 필두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의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용자 대표는 과감히 제외하고 노동계와 정부, 그리고 공익위원으로만 구성했다. 위원회는 노동이사제가 핵심 이슈인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방안 마련’과 해묵은 과제지만 매 정부마다 번번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마련’, 즉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다루기로 했다.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은 “노정이 공공부문 운영개선을 위한 의제를 사회적 대화의 중요 과제로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 “작은 것이라도 진전을 이뤄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공공기관이 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주52시간 상한제’의 시행에도 그간 특례업종으로 장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가 내년부터는 특례에서 제외되는 데 따른 노사정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는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의제는 버스 운수업의 공공성 강화, 운수종사자의 인력 양성, 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안정성 제고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민만기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위원장은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버스가 ‘국민의 발’과 같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공익적 관점의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모색에 나선다. 병원 내 강압적 조직문화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태움’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도 인력 부족과 노동환경의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노사정이 공감한 바 있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은 김 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가 위촉됐다. 다양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민간 중소병원 소속 노사 관계자 각각 4명을 위촉했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대표 2명과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의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 방안’, ‘임금실태 파악을 통한 합리적 개선 방향’,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으로 정했다.

김 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위원회의 논의는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한다는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진지한 대화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기 경사노위의 본격적인 가동의 특징은 그동안 미뤄져왔던 ‘양극화 해소와 이를 통한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이라는 중장기적 과제 논의에 첫 발을 뗐다는 데 있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 해결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사회적 대화가 근본적으로 말아야 했던 역할로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또한 주52시간 상한제 등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에 주요 업종 노사정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대화의 틀을 정착시킨 것도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가수준의 대화는 지속됐지만, 지역·업종과 같은 중위수준의 대화는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의 핵심은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대접받고, 불합리한 격차가 해소되며,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와 3개 업종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2기 경사노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만큼 작은 것부터 결실을 맺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 주체 간 신뢰를 쌓아 더 큰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